

갈등을 마주하고,
나는 글을 쓰기로 했다

최하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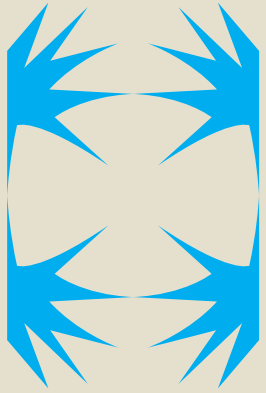
2020 활력향연 × npo

01

활력향연 2020



01 최하늬





최하늬

평화 활동가입니다. 일상과 평화의 연결을 고민하고 실천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만나 글로 직조하는 과정이 소통과 공감의 힘을 만들 수 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hanui.wind362@gmail.com

2020 활력향연

활동가 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지원사업 <활력향연>은 공익활동가들이 스스로 연구주제를 탐색하고 개발하여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활동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듭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펴냄 | 서울시NPO지원센터

발행 | 2020년 11월 27일

주소 | (04523)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1-2층

전화 | 02-734-1109

전송 | 02-734-1118

메일 | contact@snp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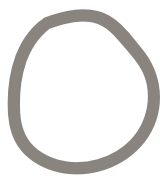
홈페이지 | www.snpo.kr

이 보고서는 서울시NPO지원센터의 활동가 연구지원사업 결과물로서 서울시NPO 지원센터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연구결과물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갈등을 마주하고,
나는 글을 쓰기로 했다.

최하늬



프롤로그

04 | 글쓰기가 해답이 되진 않겠지만

1장 안 되겠다, 글을 쓰자

11 | 글을 쓰기로, 결정했어요

13 | ‘기종’이란 독자에게

17 | 〈기종과 하늬〉를 소개해요

2장 이야기와 이야기가 만나서

21 | 이야기가 도착하는 순간

24 | 〈기종과 하늬〉 이후 만나게 된 이야기

25 | 기종, 향임, 준영의 이야기

40 | 흩어진 이야기가 만나서



3장 갈등을 마주하는 우리들의 글쓰기

갈등을 마주하는 용기와 글쓰기 | 43

둘만의 것이 아니라는 알아차림 | 44

기억과 감정을 체로 걸러보면 | 46

결국엔 존중과 애정이 아닐까요 | 49

이야기는 사람을 만나 이동하고 변화하며 | 52

그리고 확장한다 | 53

함께 한다면 더 힘이 될 거예요 | 58

에필로그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이곳에서 | 63

고마움의 글 | 69

〈다크룸〉서평:

나를 구성하는 조각들의 해체와 결합, 그리고 재구성 | 71

추천하는 책 | 79

프롤로그

글쓰기가 해답이 되진 않겠지만



저녁 즈음 만나 인터뷰를 끝내고 나오니 꽤 어두운 밤이었다. 세차게 내리던 비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우산을 써야 했다. 가로등 불빛에 드러난 얇은 빗줄기를 보며 조심스럽게 계단을 따라 아래로 내려갔다. 큰 도로가 보일 때까지 걸으면서 H와 인터뷰한 내용을 곱씹어 보았다. 기억나는 장면을 붙들고 떠올려 봐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 아주 많이 달랐다. 나는 잠깐 ‘멘붕’에 빠졌다. ‘아, 어떡하지? 주제를 다시 잡아야 할 것 같은데.’

2020년 3월 24일, 정치적 성향의 차이(이하 정치적 다름)로 오랜 갈등을 겪고 있던 아버지와 관계를 풀기 위해, 갈등을 좀 더 슬기롭게 바라보고자 시작한 글쓰기를 매듭지었다. 글 조각을 묶어 만든 책자의 제목은 아버지와 나의 이름을 붙여 <기종과 하늬>로 했다. 책자를 발간하고 나서 주변 동료들과 친구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 긴 시간 노력한 결과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져 기쁘기도 했지만, 그만큼 주변에서도 비슷한 주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고 여겼고, 또 다른 ‘기종과 하늬’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싶었다. 만나서 우리의 경험을 모은다면 갈등을 마주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생길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생겼다. 더불어 이런 작업이 개인적 의미를 넘어 더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사회적 의미가 충분히 더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H와 진행했던 첫 인터뷰는 내가 막연히 기대했고 가정했

던 생각이 여전히 갈등을 평면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음을 일깨웠다. 부모 자식 간의 정치적 다름이나, 활동가로 사는 우리를 향한 부모의 안타까운 시선 등 공통점이 분명 존재했지만 몇 가지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것이 달랐다. 표면적 갈등의 양상은 비슷할 수 있지만 갈등을 마주하는 가족 구성원의 태도와 배경, 종교, 역할, 성격 등이 매우 달랐다. 더불어 한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체득한 자산과 배경이 가족 구성원에게 끼치는 영향과 그 정도 역시 상이했다. 정치적 다름만을 주제로 두고 갈등을 해석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혹시나 싶어 가족 구성원과 정치적 다름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활동가를 찾았지만 갈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거나, 갈등의 굴곡이 큰 경우를 찾기 어려웠다. 밥상머리에서 ‘정치’에 관한 대화는 암묵적으로 피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나의 연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물론 양측 검정 연구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각자 상황의 다름을 기반으로 두고 다수의 사람들을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갈등을 다양한 각도로 조금 더 심도 있게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 연구를 희망했다. 정치적 갈등을 세대 간 차이 혹은 이념 간 차이로만 인식하고 싶지 않았다. 갈등의 원인을 좁게 단정 짓는다면, 해결하거나 풀어갈 수 있는 여지도 그리 많지 않다. 나 역시 아버지와 갈등을 “우리는 세대가 달라서” 또는 “이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진다. 보이고 마주하는 갈등이 수면 위에 떠 있는 빙산의 일각이라면, 나는 이 연구를 통해 수면 밑 내가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려고 시도하고 싶었다. 그것이 무엇이 될지 예상할 수 없었지만, 가능성을 미리 닫고 싶지 않았다.

또한 전문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측 감정 연구를 할 수 있는 방식이나 시간, 자원 등도 충분치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본격적으로 연구에 착수해 사람을 만나기 전, 선행 연구를 진행한 논문을 찾아 읽어 보았다. 이미 가족 구성원 간 정서적 다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사례가 있었다. 흥미로웠지만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방식과 달랐기에 자료로 채택하지 않았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이 연구에 접근하고 시작하면 될지 잘 판단이 서지 않았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책자가 나온 뒤 석 달쯤 지난 어느 날, <기종과 하늬>를 궁금해하는 친구들과 함께 ‘작가와의 대화’를 소박하게 진행했다. 나와 비슷한 갈등의 맥락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달랐다. 그렇기에 궁금했다. 왜 이 사람들이 시간과 마음을 내어 이 자리까지 왔을까, 단순히 내 작업을 축하하고 응원하기 위해서만은 아닐 텐데. 어떤 지점들이 교차하는 걸까. 나는 어떤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

‘작가와의 대화’에서 나누었던 대화로 나는 또 한 번 생각이 거세게 흔들렸다. 나와 비슷한 갈등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독자 각자의 삶에서 저마다의 이유로 겪어온 갈등의 맥락

속에서 <기종과 하늬>는 또 다른 의미로 새롭게 구성되었다. 반갑게도 나처럼 가족 구성원과 얽혀있던 관계를 풀어보고자 글쓰기를 시도한 사람들과 글쓰기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났다. 각자가 직면하고 있는 갈등 혹은 관계를 글쓰기라는 방식으로 다시 보고자 했던 사람들. 그들과 마주하면서 나의 시선은 ‘갈등’에서 ‘글쓰기’로 옮겨졌다. 그들은 왜 글쓰기를 시도했을까.

<기종과 하늬>를 쓰는 도중에는 몰랐다. 이 글쓰기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될 것인지. 단지 아버지와 관계를 조금 더 낮설게 바라보고 싶었고, 대화를 하고 싶어 쓰기 시작했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글을 마무리하고 책이 발간되어 가족에게 전하고 난 후에야 글쓰기가 어떤 의미였는지 알게 됐다. 내가 시도한 글쓰기는 타인과 관계를 슬기롭게 바라보려는 용기였으며, 그 상황에 처한 나를 긍정하는 과정이었다.

글쓰기의 의미에 대한 나의 알아차림이 글쓰기를 시도했던 사람들과 고민의 걸을 같이 할 수 있을지 궁금해져서 다시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글을 완성해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글쓰기를 잠시 멈춘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사유가 분명하게 교차하는 지점들을 보았고 다시 희망을 품게 되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 연구를 관통하는 중심은 갈등의 양상인 ‘정치적 다름’이 아니라 갈등을 마주하고자 시도했던 방식, ‘글쓰기’다. 글

을 쓰는 행위를 통해 어떻게 얽혀있는 관계의 매듭을 풀고자 했고, 힘을 얻을 수 있었는지에 관한 나의 관찰과 경험을 담은 이야기다. 왜 내가 글을 쓰게 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 <기종과 하늬>가 만들어졌는지 소개하고, 가족들과 친구들이 책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생각했는지 나누고자 한다. 그리고 왜 글쓰기가 갈등을 마주하는 데 있어 소중한 방식이 될 수 있는지 나의 경험과 타인의 경험을 직조해보고자 한다.

이 방식이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누군가는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 꼭 어떤 갈등이 있어야 글을 쓰는 것이 아니며, 글쓰기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아니다. 그저 갈등을 마주하려는 무수히 많은 방법의 하나로서 글쓰기가 어떤 과정이고 여정인지 들여다봐 주기를 요청할 뿐이다.

1장

안 되겠다, 글을 쓰자



글을 쓰기로, 결정했어요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이었을까. 아버지는 친구들과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셨다. 당신의 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친구들에게 알려주겠다며 인터넷으로 내 이름을 검색하셨고, 내 이름과 함께 그동안 내가 동료들과 함께 참여했던 다양한 활동이 검색창에 뜨기 시작했다. 사드 배치 반대 직접행동이나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글, 소위 진보 교육감들과 토론회를 하는 등의 활동이었는데, 아버지가 쉽게 동의하고 긍정하기엔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했다. 아버지는 친구들에게 내용을 보여주지 않은 채 황급히 전화기를 닫았다고 설명하셨다. 지난 일이었지만 그 순간을 묘사하던 아버지의 양 볼은 살짝 상기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그저 묵묵히 들을 뿐이었다. 아버지의 당황스러움을 보고 듣는 내 입장은 어땠을지 생각해 보셨냐고 되묻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 날 이후 우리의 대화는 오랫동안 중단되었다.

아버지와 정치적 다름을 이유로 부딪히기 시작한 것은 내가 대학에 입학한 스무 살 무렵부터다. 부모님 집을 떠나 대학에 입학하는 내게 아버지는 ‘학생회’ 활동과 ‘이념 서클’에 가입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몇 차례 강조하셨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아버지의 당부가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고, 아버지가 어떤 심정으로 당부하셨는지 역시 알지 못했다.

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학생회 활동을 했고, 대학교의 ‘이념 서클’과 ‘동아리’가 어떻게 다른지 구분할 기준이 없었다. 중고등학교 시절의 경험이 대부분 즐거웠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대학에서도 학생회와 동아리를 모두 가입했다. 대학에서 처음으로 광화문과 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여했다.

대학에 입학한 뒤 처음으로 부모님 집으로 향했을 때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셨다. 자신이 그토록 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것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부탁을 들어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도 있었지만, 나는 아버지의 오해를 풀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스무 살의 나는 내 경험을 충분히 언어로 정리해 말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했고, 아버지는 속상한 마음을 거칠게 표현하셨다. 서로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해가 낮았고 그것이 오해로 발전하면서 우리의 갈등은 점점 커졌다. 오랜만에 만나 술이라도 한잔 기울이다 보면 의견 충돌에 감정이 더해져 서로를 할퀴었다. 부딪히는 시간이 쌓이다 보니 갈등을 피하는 나름의 기술도 생기고, 되도록이면 대화의 주제에서 정치적 사안을 피하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됐지만 대화가 오랫동안 중단된 적은 없었다. 언쟁 직후 바로 푼 적도 있었고, 말보다는 글이 더 좋을 것 같아 메일이나 문자로 진심을 전하면서 갈등 상황이 종료된 적도 여러 번이다. 하지만 그 겨울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사실 아무 것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내겐

자랑스러운 활동을 부끄럽게만 여기는 아버지가 야속하기도 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반년 정도 지나면서 부모님 집에 갈 때마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아버지를 매번 마주하기가 쉽지 않았고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적인 자리나 워크숍 등에서 아버지를 떠올리며 이야기할 때마다 울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다. 또한 평화교육 진행자로서 참여자와 만나면서 평화 감수성에 관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가 정작 가족과 소통이 막혀 있는 상황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탈출구가 필요했다.

십 년이 훨씬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갈등을 한번 정리하고 싶었다. 아버지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가 ‘정치적’인 것 말고도 여러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고 싶기도 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드리는 긴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말로 모든 것을 전달할 자신이 없었다.

‘기종’이라는 독자에게

‘안 되겠다, 글을 쓰자. 글을 한 번 써 보자, 하늬야.’ 나는 나에게 선언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런 상황을 유지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라고.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

로 왜 관계가 단절되어야 하는가. 수많은 사람이 정치적 혹은 이념적 다름을 이유로 서로를 할퀴듯이 마주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저 답답했다. 왜 우리는 ‘다름’을 그냥 편하게 여길 수 없는 건지 나 자신을 포함해 모두에게 묻고 싶었다.

어떤 글을 쓰면 좋을까.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야 할까. 어떤 메시지를 건네야 화해의 신호로 받아들일까. 글을 쓰면서 아버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 가지였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와 관계를 조금이나마 풀고 싶은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아버지가 독자라는 사실을 글을 쓰는 내내 마음에 새기고 또 되새겼다. 두 번째는 아버지와 나 사이에 정치적 이슈가 얽혀있기도 하지만 우리를 이어주는 것이 꼭 그것만이 아니라 다양하다는 걸 전하고 싶었다. 정치적 다름은 어쩔 수 없더라도, 여전히 나는 아버지의 딸이며 아버지와 함께했던 좋은 기억을 잃고 싶지 않았다. 세 번째는 기종에게 하늬는 딸이기도 하지만 그냥 ‘하늬’라는 존재로 바라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 싶었다. 세대 차이도 있고 정치적 견해도 다르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하늬’를 인정하고 이해하길 바랐다.

<기종과 하늬>를 쓰면서 세 번째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글을 쓰기 무척 어려웠다. 나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지고 감정이 복잡해졌으며, 나를 설명하려는 열망이 높아졌다. 이 점에

있어서 글쓰기를 도와주던 편집자의 조언이 큰 힘이 되었다. 그는 <기종과 하늬>가 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면 세 번째 바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나는 글을 쓰면서 ‘기종과 하늬’의 관계에 대해 꾸준히 생각하고 다듬을 시간이 있겠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맞는 말이었다.

<기종과 하늬>는 아버지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딸의 긴 편지이다. 글을 쓰면서 발견한 사실 하나는 스무 살 이후 떨어져 산 시간이 꽤 길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모르는 내가 존재한다는 점이었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자 스무 살 이후 큰 영향을 받았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 나를 조금 더 보여주면서 대화를 다시 시작했으면 하는 희망이자 제안이었다.

최대한 아버지가 이해하실 수 있는 어휘와 표현으로 글을 썼다. 나도 모르게 나에게 익숙한 단어가 아니라 누구나 읽었을 때 공감할 수 있는 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단어를 골랐다. 예상했던 것보다 쉽지 않아 편집해주었던 친구와 많은 대화를 나눴고, 책으로 만들기 전에 몇몇 지인에게 글을 보여주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언어의 결을 맞추고, 나를 설명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며, 감정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했다. 글을 쓰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이 글로 인해 아버지와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것이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썼다. 왜냐하면 <기종과 하늬>의 독자는 ‘기종’이니까. 나는 기종에게 말 걸기를 시도하고 있으니까.

기종과 하늬

아빠와 딸, 다정함에도 용기가 필요한 걸



하늬 지음

<기종과 하늬> 표지

〈기종과 하늬〉를 소개해요

〈기종과 하늬: 아빠와 딸, 다정함에도 용기가 필요한 걸〉은 나의 아버지 ‘기종’의 양력 생일인 3월 24일에 맞춰 발간했다. 부족하지만 뿌듯한 글이었다. 크게 3장으로 나누어 글을 썼다. 스무 살 이전 아버지와 내가 함께 했던 시간 속에서 공유하고 있는 기억을 중심으로 먼저 쓰고, 스무 살 이후 대학에 들어가면서 시작된 갈등을 풀었다. 이후 나의 삶에서 큰 영향을 준 경험과 인상 깊었던 아버지와 기억을 조각조각 꺼내어 썼다. 물론 가족들의 이야기도 포함된다.

아버지와 대화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글의 내용 이외에도 많은 점을 고려했다. 아버지가 독자인 것을 고려해 글자 크기를 키우고 우리가 함께 찍었던 사진도 배치했다. 각 장을 시작하면서 함께 들으면 좋을 음악을 QR코드로 넣기도 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악과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적절히 섞었다.

〈기종과 하늬〉는 아버지와 대화가 멈춘 동안 썼기 때문에 아쉽게도 아버지의 서사가 부재하다. 아버지가 모르는 내가 있듯이 내가 모르는 아버지도 분명 존재할 것이기에, 기종의 서사를 듣고 담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은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스무 살 이후 찍은 사진이 많지 않다는 점이었다. 그나마 찾은 사진은 인

화하기 적당한 것이 없었다. 아버지와 단둘이 찍었던 사진은 대부분 늦은 저녁이거나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찍은 것이어서 책에 담기 어려웠다. 부모님께 책을 드리고 꼭 기회를 만들어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했다.

2장

이야기와 이야기가 만나서

이야기가 도착하는 순간

〈기종과 하늬〉를 아버지에게 전하러 부산으로 내려가는 기차에서 책자의 출간 소식을 SNS를 통해 처음으로 지인들에게 알렸다. 어떻게 이 글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글을 쓰면서 어떤 감정이 일렁였는지 고백했다. 가까운 지인들만 알고 있었던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순간이기도 했다. 아버지의 반응을 알 수 없었고, 책을 드리러 간다는 것만으로도 무척 떨렸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기도 했다.

책을 드리고 난 후 다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던 기차에서 지인들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생각보다 많은 지인이 축하와 격려의 말을 남겨 주었다. ‘멋있다’며 힘을 실어주는 말이 가장 많았고 ‘너다운 시도’였다고 말해주는 오래된 친구들도 있었다. ‘글쓰기’가 너다운 시도였는지 나조차 몰랐지만, 의미 있는 시도인 것 같아 뿌듯하기도 했다.

부산에 도착한 이튿날, 온종일 언제 책을 드리면 괜찮을지 속으로 생각했다. 아버지와 다시 대화를 조금씩 시작하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부모님과 함께 외식을 했다. 우리는 슴슴한 대화를 주고받았고 아버지는 가벼운 반주를 걸치셨다. 정치적인 주제로 대화가 흘러갈 때면 마음이 조마조마해졌다. 평범

한 대화였을 뿐이었지만 내 머릿속은 망망대해 한가운데에서 거친 풍랑을 맞은 초라한 배처럼 계속 울렁거렸다. 그저 바다가 잔잔해지길 바랄 뿐이었다. 외식을 마치고 집에 도착해서야 나는 ‘지금’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실 탁자 앞에 앉으셨고 나는 책 꾸러미를 가지러 방으로 들어갔다. 심장이 얼마나 빠르고 시끄럽게 뛰던지. 두 분이 어떤 마음으로 책을 보고 읽으실지 전혀 알 수 없어서 설레면서도 걱정됐고 긴장됐다. 이번엔 온몸에서 식은땀이 나는 것 같았다.

매듭을 풀기 전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드렸다. 언제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고, 왜 시작했으며, 얼마나 곁렸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버지에게 드릴 긴 편지가 어떤 과정을 통해 책으로 나오게 되었는지. 떨리는 마음을 추스르지도 못한 채로 머리보다 입이 먼저 말문을 열었고 나는 내 입에 기대어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기종과 하늬>를 두 분 앞에 한 권씩 내밀었고, 두 분 모두 예상하지 못한 일에 당황하시면서도 책을 물끄러미 쳐다보셨다. 어머니는 이내 책을 펼쳐 글을 읽으셨고 아버지는 잠시 들추어보시더니 계속 표지만 쳐다보셨다.

<기종과 하늬>가 완성될 즈음 어머니가 가장 많이 떠올랐다. 만약 기종과 하늬 사이에 ‘향임’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이 길고 긴 여정을 시작할 수도 마칠 수도 없었다는 사실을 글을 쓰면서 알게 되었다.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한 가득인데 글로 표현하지 못한 것이 켄끄럽게 남아 있었다. 혹시라도 서운해하시진 않을까 염려하면서, 책을 드릴 때 어머니께 편지를 따로 써서 함께 드렸다. 조금이나마 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어머니는 얼른 편지를 읽으시더니 곧 책을 드셨다. 이내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인 눈물을 보이셨다. 아버지는 여전히 책을 들여다보지는 않으셨지만, 자신과 함께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 역시 정치적 갈등으로 가족들과 대화가 중단되거나 관계가 소원해진 경우가 더러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하셨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상기된 상태로 약간 정신이 몽롱했던 것 같다. 부모님이 책을 받으시면서 보여준 여러 가지 감정들과 마음을 보면서, 아버지의 발갱게 물든 볼 뒤로 숨어버린 또 다른 생각들이 무엇일지 혼자 추측하면서 <기종과 하늬>가 어떤 의미일지 궁금했다. 그렇다 보니 아버지가 ‘고맙다’라거나 ‘감동적이다’라는 등의 단어를 사용하셨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분명 어머니의 반응은 기억이 선명한데 말이다. 생생한 장면 중 하나는 책을 꼼꼼하게 읽으신 어머니가 한 문단에 ‘너무’가 네 번이나 반복되어 들어갔다거나,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기억 중에서 틀린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며 “만약 2쇄를 짤 거라면 상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짚어 주신 일이다. 이걸 또 뭔가 싶어 줌 흥미롭기도 했지만 말이다.

그렇게 끝이 났다. 부모님이 화를 내지 않으면 다행이라 생각했던 나의 걱정은 굉장히 쓸모없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자의 방식으로 <기종과 하늬>를 건네받고 마음을 표현하였다. 가족만이 확인하고 나눌 수 있는 대화도 있었고, 그렇기에 선불리 다가갈 수 없는 마음의 거리도 있었지만, 이 정도면 됐다 싶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어떻게 책을 쓸 생각을 다 했느냐며 다시 한 번 나를 토닥여주셨다. 나는 어머니가 없었다면 이루지 못했을 거라는 말만 나직이 되풀이했다.

<기종과 하늬> 이후 만나게 된 이야기

<기종과 하늬>는 어떻게 보면 완성된 형태의 이야기가 아니다. ‘기종’의 이야기도 빠져 있고 ‘향임’의 마음을 충분히 채져보지 못한 아쉬움도 남아 있다. 또한 알고 싶은 ‘준영’의 이야기도 빠져 있다. 십수 년을 부딪쳐 왔던 아버지와 누나를 바라보는 동생의 마음이 어땠을지 알고 싶었다.

<기종과 하늬> 출간 이후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산에서, 동생은 함께 사는 집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질문은 같았지만 전개되는 과정과 방식은 각각 달랐다. 한 번의 인터뷰에 모든 것을 담기는 어려웠지만, 그동안 갈등을 마주하고 바라본 구성원의 마음과 생각을 듣는 첫 번째 시간이었다. 보통의 대화가 아니라 인터뷰라는 형식을 갖추어 진행한 대화에서

우리는 사뭇 진지해졌고 때로는 그 진지함을 견디지 못해 힘들었다. 하지만 인터뷰였기에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고, 우리의 상황을 모두 낫설게 바라볼 수 있기도 했다. 나 역시 그렇다.

기종, 향임, 준영의 이야기

기종의 이야기

인터뷰 형식을 갖춘 우리의 대화는 부엌 식탁에서 이루어졌다. 오전 11시 즈음, 이제 막 더워지기 시작한 6월의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에게 인터뷰 내용이 보고서에 실릴 거라고, 출간하기 전 내용 확인을 위해 글을 보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호방한 태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의사를 밝히셨다. 차가운 물을 서로의 앞에 두고 인터뷰를 시작했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첫 질문을 던졌다.

“〈기종과 하늬〉를 받고 읽으신 다음 어떤 심정이셨어요? 느낌이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이 자식이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흔치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남기고 싶어 하는구나 내용이 궁금해서 들여다봤지. 뭐 결론을 내는 것 같아서 뭣 하기는 하지만 ‘목적이 이런 쪽에 있구

나, 엄두에 두고 쓴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책을 받았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거 하고 책을 보고 난 뒤에 생각이 다른 방향이었지.”

“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방향이 달랐어요?”

“처음에는 니하고 내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부모자식 간에, 이념과 상관없이, 모습을 담아 두려고 하는 것 같아 좋게만 생각했는데 그걸 읽으면서 뒷부분에 가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마음이 안 편했지.”

‘아, 이게 무슨 소리지? 뒷부분에 가서 생각과 달랐다니.’ 잠시 귀를 의심했다. 생각지도 못한 대답에 마음 한쪽 바닥이 푹하고 깊이 꺼지는 것 같았다. ‘목적이 이런 쪽에 있다니. 내 목적은 아버지와 관계를 전환해 보고 싶은 것, 그게 다인데.’ 순간적으로 정신이 혼미해졌고 똑바로 다잡기 위해 얼른 두 눈을 부릅뜨고 다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음, 그럼 아버지에게 <기종과 하늬>는 어떤 의미인지 물어볼게요. 아버지에게 이 책의 의미가 달라지긴 했지만, 읽고 나서 혹시라도 딸에 대해 달라진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또 생각이 다르겠지만 내가 마지막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이 이념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문이나 이념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물러선다면 자기 존재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물러서지 않으려 한다. 존재감이 사라지니까.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중략)”

아버지에게 <기종과 하늬>가 어떤 의미였는지, 어떤 느낌 또는 심정이었는지 비슷한 질문을 여러 번 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빠뜨리고 말끔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되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내 예상을 빗나가는 대답 뿐이었다. 우리에게는 이념이 아니더라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많다는 걸 보여 드리고 싶었다. 그 부분을 봐주시길 바라고 아버지에게 내 마음이 닿기를 바랐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아마도 당연히, 이념 또는 정치적 다름의 아쉬움으로 책에 대한 인상을 표하셨다. 더 이어나갈 힘이 다 빠져나가 버렸고 집중력은 흐트러졌다. 인터뷰를 더 진행할 수 있을까. 앞으로 더 물을 이야깃거리가 있을까. 인터뷰를 더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만 같았다. 그런데도 느긋한 모습을 잃지 않으려, 끝까지 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 노력했다. 아직 남아있는 질문들이 컴퓨터 모니터에서 깜빡깜박하고 있었다. <기종과 하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냐고 물었을 때도 아버지는 ‘마지막 문단’을 말씀하셨다.

정치적 다름으로 우리는 평행선을 달리겠지만, 서로와 같은 모습으로 달리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 앞만 보고 가지 말고 잠시 멈추어 딸이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 왜 그렇게 달리고 있는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거면 충분할 것 같다. (하늬, 〈기종과 하늬〉, 65쪽)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은, 아마도 이 부분일 거다. 그중에서도 ‘기종과 하늬가 끝까지 평행선을 달리’겠다는 부분에 주저앉아 생각하셨을 거다. 서로가 만날 수 없는 평행선. 하지만 나는 〈기종과 하늬〉를 마무리 지으며 우리의 평행선이 조금씩 간격을 좁히길 바랐다. 비록 가는 방향은 다르지만 비슷한 모양으로 달리는 우리를 봐 달라고, 왜 그렇게 달리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길 은근슬쩍 요청했다.

“기억에 남는 건 마지막 부분이야. ‘아직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 뻘한 이야기잖아. 간격을 좁혀 나가고 어찌고저찌고 그건 말장난이고. 그건 말장난이야.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사상이나 이념은, 물려선다는 건 없다. 내가 (정치적 신념이나 행동을) 잘못했다고 용기 있게 할 사람은 없어. 그것 자체가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종’이라는 사람이 궁금했다. 왜 그는 그토록 확고하고 단단할까. 왜 사상이나 이념은 물려설 수 없는 무엇이고 ‘간격

을 좁힌다’는 것은 말뿐인 것으로 단정하는 걸까. 나 역시 한번의 시도로 모든 것을 해소하겠다는 허망한 꿈을 꾸지 않은 없다. 다만 조금이나마 내 진심이 전해지길 바랐는데, 욕심이었던 걸까.

아버지에겐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었다. 자신의 막냇동생이 대학에 입학하고 학생운동을 시작하면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 말이다. 착하고 순수하고 공부만 했던 동생이 돌변한 것처럼 보였던 과거의 파편들이 나의 모습에 꽂혀 딸의 변화를 마음 편히 바라보실 수 없었을 거다.

“아버지 그럼 작은아버지를 보고 학생운동을 반대하셨어요, 아님 그 이전에도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데모가 일어나던 시기에는 내가 군대에 있었으니까 잘 알 수 없고. 제대하고 나와서 직장 생활 할 때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났을 거야. 좌우간에. 그때는 직장에 매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데모 물결 지나가고 해도 내려갈 수 없잖아. 그러다가 미문화원 방화사건.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눈에는 ‘아 저게 빨갱이구나’하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 자기가 할 말이 있으면 얼마든지 말로 해도 되잖아. 담을 넘어서 불을 지르고 그런 시위는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지만 용서가 잘 안 돼요. (중략)”

벌써 30년도 더 된 일이라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사건들의 시기가 엉켰다. 실제로 1979년에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민주화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 1982년에 미문화원에 방화사건이 일어났다. 부산지역의 대학생들이 미국 정부가 군사독재를 용인하고 지원했다는 데에 대한 이유로 미문화원에 방화한 것이다. 민주화운동을 촉발한 계기였음에도 방화라는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무고한 대학생이 사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군 복무 중이셨던 아버지는 1979년 10월부터 1980년 5월까지 군화도 벗지 못한 채 대기상태로 많은 밤을 보냈다. 문득 궁금해졌다. 나라면 이 시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갔을까.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기에 아버지의 확고한 생각이 오히려 흐릿하게나마 이해되는 것 같았다.

마음의 파고가 높은 인터뷰였고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기 역시 쉽지 않았다. 여전히 곳곳한 아버지의 태도가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내가 〈기종과 하늬〉를 쓴 의도를 몰라주시는 것 같아 속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터뷰를 마치고 대화를 정리하고 글로 옮기는 과정이 돼서야 아버지의 이야기가 ‘기종’의 이야기가 되었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그 시대를 떠올리고 그 순간을 살아갔던 사람을 여러 겹으로 생각해 보았다.

아버지와 내가 대화를 다시 시작한 시점은 〈기종과 하늬〉를 드린 2020년 3월보다 훨씬 전이었다. 2019년 10월 3일 개천절, 서울역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아버지를 서울역

부근에서 잠깐 만났다(마침 나는 서울역에서 친구와 선약이 있었고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다). 아버지는 “네가 반응(집회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을 해 준 게 고마워서 내가 말을 잊지 못하고 그랬다”고 설명하시면서 책자를 보시곤 당신의 마음과 같지 않음을 아셨다고 했다. 그런데도 ‘우리공화당’이라는 단어가 함께 적혀 있는 것을 보시곤 “인정해 주는 것 같다”며 지나가듯 말씀하셨다. 아버지와 함께 집회를 참여하시는 친구분들의 이야기도 슬며시 궁금해졌다.

향임의 이야기

“15년 정도 아버지와 딸이 정치적 다름으로 갈등이 많았는데, 중간에서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을 텐데 혹시 이 갈등을 풀어보고자 어머니는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사실 니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아빠한테는 비밀로 하고 성주에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갔을 때나, 제주 강정 마을에 간다든지 그다음에 무슨 퍼포먼스를 많이 하러 다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였어. 엄마는 정치적인 경향에 대해서는 크게 치우치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

는데…… 아빠는 뭐 아빠를 설득할 수 있는 법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라도 얘기해도 뭐 틈이 보이지 않았지. 아빠를 설득해 보려고 나도 참 많이 노력했지만 뭐 바늘 틈 하나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차리라 너를 설득해 보는 게 더 수월할 것 같아가지고 (웃음). 나는 이제 아빠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니도 반발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엄마는 또 미화해서 얘기를 해 보기도 했는데, 너도 또 바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았지). 준영이한테도 누나를 좀 말려보라든지 뭐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기분 안 좋으니까 좀 풀어 드리라든지 말을 했지만, 준영이도 만만치 않고 어머니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중략) 정말 너무 힘들었다, 최하늬! (웃음) 이제야 고백이지만 딸아이를 멀리 떠나보내고 자식을 잘 키운다고 노력했지만 잘못 키운 건 아닌가 많은 갈등을 했단다.”

아버지와 나 사이에서 어머니가 쉽지 않은 자리에 있을 거라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직접 물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인터뷰를 통해 처음으로 듣는 어머니의 이야기는 ‘갈등은 당사자만의 것이 아님’을 알려 주었다.

“짧게 말씀하신다면 향임은 ‘기종과 하늬’ 사이에서 어떤 역할이었을까요? 혹은 어떤 위치였을까요?”

“위치, 위치? 눈치 보는 위치? (웃음). 왜냐면 나는 아빠 편도 못 들고 니 편도 못 들고 하니까. 니 편에 서면 니가 맞고 아빠 편에 서면 아빠가 말이 맞잖아. (중략) 위치라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치 보고, 나도 정치적으로 어떤 색깔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삶이 참 너무나 바쁜 삶을 살다 보니 어찌 보면 아침에 출근해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진짜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고 돌아와 가지고, 정치에까지 관여하기에는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됐다고 해야 하나. 많이 외로웠어. 그러니까 더 일에 매진했던 것 같아. 왜냐면 아빠 생각해도 속상하고 딸을 생각해도 속상하니까 내가 더욱더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지.”

기종과 하니 사이에서 향임은 중간자였다. 그는 기종과 하니의 말을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옮기거나, 서로가 감정이 다치지 않도록 중간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향임은 중간자 역할을 ‘눈치 보는 위치’라고 말했지만, 그 눈치 덕분에 기종과 나는 서로에게 덜 상처를 주며 지금껏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중략) ‘소나기는 피해가라’는 말이 있거든. 요 때(갈등이 심할 때)는 너무 자주 만나는 것보다 냉전기를 약간 가져보는 것도 좋게 발전할 수 있는... 득이 되지 않을까? (중략)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다는 약간 선의의 거

짓말은 아니겠지만 정말 옛날 좋았던 감정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끔 정치적인 이야기보다 스포츠나 다른 쪽으로 관심사를 옮길 수 있고, 대화를 풀 수 있는 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모부랑 나랑은 중도, 아빠는 보수, 외삼촌은 진보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회복에 도움은 되더라고 서로 자제하고 (웃음)”

정치적인 갈등은 나와 아버지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나 친척으로 확장해서도 피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어머니는 꽤 긴 시간 동안 이러한 부딪힘을 함께 견뎌내면서 나름의 지혜를 제시했는데 나에게도 새로운 지점이 있었다. 사실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갈등의 골이 깊거나 높이가 상당하면 잠시 만나는 것을 피하고 시간을 갖는 것도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태도임을 알았다. 소나기가 지나가면 비가 그치고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잠시 갈등에서 멀리 떨어져 그 상황을 잠시 잊어버리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었다. 그렇다 보면 비가 그치고 땅이 굳는 것처럼 다시 마주할 힘이 생길 수도 있고 갈등의 높이가 조금 낮아질 수도 있을지 모른다. 또 하나는 중간자 역할처럼 주변 사람의 역할도 중요하며, 정치적인 이야기보다 다른 관심사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 언뜻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소나기를 온몸으로 맞고 있는 상황에 있으면 다른 것을 볼 여유를 가지기 쉽지 않다.

“맞아요. 중간자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기종과
하늬처럼 갈등 당사자들은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안전지대가 굉장히 좁아진단 말
이야. 너처럼 젊은 사람들은 갈등의 주인공들이긴 하지
만 젊기도 하고 공부도 했고 사고가 열려 있어서 어른들
을 막 틀렸다고 몰아붙이기보다는, 너희들이 나라를 사
랑하는 마음이나, 어른들이 가진 치우친 어떤 국가관이
나, 여태까지 세뇌되어있던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야지). 그러니까 세계가 정말 넓잖아. 다들 지
켜보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우리나라가 어찌 되지는 않
을 거잖아. 그런데 보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최악
의 경우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한다든지, 전쟁이 곧 일어
난다든지 이런 강박관념 같은 게 있더라고. “무조건 말
려야 한다. 저러면 안 된다. 잘못됐다. 선전선동 당하고
있다.” 아빠가 이런 말씀만 반복하니까 나도 아빠 말씀
듣고 있으면 불안할 때도 있어. 근데 니 얘기를 들어보면
안심이 되기도 하고. 정치적인 얘기보다는 취미를 통한
다른 쪽의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풀어나가고 하면 좋을
것 같다. 니처럼 책을 다 쓸 수는 없잖아. 진짜 (갈등이)
심한 가족들은 아예 안보는 사람들도 있어. 노력하고 시
도한다는 그 자체가 고마운 거지. 많은 가정이 이런 갈등
으로부터 해방되고 정말 가족 간에 대화가 행복한 삶의

질을 높여줬으면 좋겠다. 옛날보다 지금이 더 불행하다고 하잖아. 옛날에는 진짜 마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행복하고 모든 게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지금은 돈이 있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데가 너무 많잖아. 너무 안타깝다. (중략)”

어머니와 인터뷰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있었고 놓치지 말아야 할 배움도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머니가 어떡했는지 알게 되었다. 가족이란 이유로 선볼리 묻지 않고 일부러 덮어 두었던 감정과 마음을 한 겹씩 펼쳐 함께 보았다. 나는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뽀족해지면서 표정이 사라진 얼굴을 마주하면서 외롭다는 감정을 자주 느꼈다. 고백하건대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와 대화로 그 외로움이 나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외로움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책을 쓰는 것도 좋지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또 할 수 없는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같은 취미를 가져보는 것, 같이 여행을 가보는 것, 여행가도 싸움 많이 한 데이. 두 번 다시 안 간다고 많이들 하데. 그래도 시도하지 않은 것보다는 시도하는 게 낫잖아. 시도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발전이 되지 않을까. 노력하고 깨질 걸 알지만

또 한 번 노력해 보고 부딪혀 보고 그렇게 하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준영의 이야기

“누나가 내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 예를 들어서 누나가 어떤 A라는 주제에 관해서 관심이 없었어. (누나는) 관심이 없는데 동생이 집에만 가면 엄마랑 16년째 분쟁을 일으키고 있어. 2~3년 동안 말도 안 해. 그럼 A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말을 안 하는 동생과 엄마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어땠겠노. 너무 완고해. 16년이면 충분히 지칠 만하지.”

충분히 지칠 만하다. 입장을 바꿔 들어준 예시에 나는 단번에 동생의 입장에서 나와 아버지의 지난한 갈등을 잠시나마 당사자가 아닌 주변인으로서 돌아볼 수 있었다. 내가 스무 살 되던 해부터 이 부딪힘이 시작되었으니, 동생은 열여섯 살 때 부터 지켜봐 왔다. 동생이 겪었을 감정의 파고를 모두 이해하기 어렵지만, 16년이라면 지치다 못해 ‘학을 땀’ 상황이다. 아버지와 나의 정치적 갈등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어렵듯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동생과 인터뷰를 통해 확실히 알게 되었다.

초반에는 동생도 중간자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아버지에게 말을 걸어 보기도 하고 나에게 이해해 보라는 말을 건네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의 아버지와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감정이 격했고 나의 경우 이해의 폭이 좁았던 것 같다.

“누나한테는 대단히 얘기한 거 없는 것 같고. 아버지랑 얘기해 보면 내가 인터넷이랑 책이랑 보고 들은 거랑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균형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이게 맞다던데요.”라고 말하면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를 조금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 차라리 증거를 대고 나를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너는 어려서 모른다”는 식의 그런 대화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없잖아. 서로 같이 교과서를 본다거나 인터넷에서 누가 맞나 내가 틀리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니는 아직 어려서 모른다”고 말해 버리면 발전적으로 될 수 없잖아. ‘아,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겠구나’하면서 포기하고 이해하는 편을 택했지. 그냥 저 시대 사람을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했지. 안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드니까.”

준영이가 나에게 ‘대단히 얘기한 것’이 없는 이유는 그 당시 나는 부산에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말이나 방학에 짧게 머무는 동안 동생은 나와 아버지가 정치적 견해로 부딪히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이런저런 얘기를 해봐도 변하지 않고 완고한 둘의 모습을 보면서, 동생은 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 보다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우리를 지켜보는 위치에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해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물론 기본적인 뉴스나 선거 등 필요한 것은 방송이나 영상을 찾아보긴 하지만 말이다).

“왜 정치에 무관심해진 것 같은데?”

“그냥 싫은 거지. 정치 때문에 (가족이) 큰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거에 관심을 쏟고 싶겠나?”

어떤 정치적 주제를 두고도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와 아버지를, 동생은 무척 신기해했다. 정치 또는 정치적 신념이 그토록 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놀라워했으며 어머니와 비슷하게 준영이는 사는 것이 바빠 정치에 관심을 갖기 어렵다고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터뷰를 정리할 때보다 동생의 인터뷰를 정리하고 소화하는 과정이 어려웠다. 나와 아버지의 갈등이 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미안함과 쓸쓸함을 동반했다. 특히 준영이가 어떤 노력을 하려고 했음에도 그것이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결

국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변질되었다는 말은 가슴을 파고들었다.

흘어진 이야기가 만나서

<기종과 하늬>를 발간하고 나서, 지인들의 지지를 받으며 오랫동안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을 해냈다는 뿌듯한 마음이 컸다. 그래서 부모님께 책을 드리면 그것으로 이 여정을 마칠 수 있겠구나 싶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책을 드리면서 웬지 '또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겠구나' 싶었다. 무엇인지는 잘 몰랐지만 말이다.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을 인터뷰 하면서, 처음으로 갈등을 마주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갈등과 촘촘하게 엮인 위치에 대해 생각했고, 그 위치가 어디쯤일지 더듬어보았다. 물론 한 번의 인터뷰로 모든 것을 알았다고 할 수 없겠으나, 인터뷰라는 형식 덕분에 우리는 일상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솔직해졌다. 어떤 순간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기억의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도 했고 깊숙이 박혀 있기도 했다. 기억과 연결된 감정은 그에 따라 출렁거렸다.

글을 쓰는 동안 잘 몰랐지만 그 덕분에 알게 된 이야기. 몰랐으면 크게 후회했을 이야기.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다행인

이야기. 갈등의 기승전결만큼이나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위치가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파악하는 것은, 여전히 내 앞에 놓인 갈등을 어떻게 마주하고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상기 시켜 주었다.

3장

갈등을 마주하는 우리들의 글쓰기



갈등을 마주하는 용기와 글쓰기

가끔은 큰 소리로 말해 보려 노력해 보기도 하지만, 입안에서만 우물거리던 그것을, 다른 이의 귀에 닿지 못했던 그 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적어서 보여 줄 수 있음을 알게 된다. 글쓰기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침묵으로 말을 걸고, 그 이야기는 고독한 독서를 통해 목소리를 되찾고 울려 퍼진다. 그건 글쓰기를 통해 공유되는 고독이 아닐까. 우리 모두는 눈앞의 인간관계보다는 깊은 어딘가에서 홀로 지내는 것 아닐까? 그것이 둘만으로 구성된 관계일지라도. 말이 전하기에 실패한 것을 글이, 아주 길고 섬세하게 전할 수 있는 것 아닐까? (리베카 솔닛 <멀고도 가까이>(2016), 100쪽)

내가 글쓰기를 선택했던 이유는 어찌면 단순하게 시작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내 생각과 감정을 말로 모두 전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나를 글쓰기로 이끌었다. 글쓰기는 말로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이야기를, 글이라는 수단을 통해 한 발짝 떨어진 상태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글을 쓰는 과정에서 기억과 함께 등장하는 감정을 조우하기는 쉽지 않다. ‘글쓰기는 웃음보다는 울음, 화남, 힘듦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는 지인 R의 말처럼 나 역시 글을 쓰면서 감정이 너덜너덜해진 순간이 많았다. 폭 젖은 감정이 조금 마를 때까지 글을 중단하기도 했고 다른 이의 책을 읽으며 나를 달래기도 했다. 그 과정을 반복하고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면서 감정으로부

터 거리를 유지하며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 머리와 마음에 영켜있는 기억과 감정이 몸을 통과해 언어로 만들어지면서 나는 갈등 상황을 조금 더 낫설고 용기 있게 바라볼 수 있었다.

연구의 중심이 갈등의 양상이 아니라 갈등을 마주하려는 방식으로 옮겨가면서 지인 세 명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은 모두 삼십 대로, 두 명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한 명은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다. 저마다 가족 구성원과 풀어보고 싶거나 다시 돌아보고 싶은 기억으로 글쓰기를 시도한 사람들이다. 스스로에게 글쓰기란 무엇인지, 글 쓰는 과정이 어떠한지, 어떤 감정과 변화를 마주했는지 물었다. 글을 완성해가는 사람도 있었고, 중단하고 다시 쓸 기회를 엿보는 사람도 있었다. 지인과 대화를 나누고 글을 읽으면서, 서로가 경험하는 갈등은 다르지만 갈등을 마주하려는 시도에서 가졌던 감정과 고민은 서로 포개어지기도 했고 연결되기도 했다.

둘만의 것이 아니라는 알아차림

〈기종과 하늬〉는 아버지와 나의 관계에 대한 글이었지만 글을 쓰면서 나에게 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많이 하게 되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 대해 잘 몰랐는지 깨달았고 아버지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또한, 어머니와 동생이 갈등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지 알고 싶었다. 갈등이 결코 둘만의 일이 아

님을 깨달았고 그 갈등을 마주했던 나에 대해서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기회가 되었다.

글쓰기의 대상과 나 외에, 그 상황에서 있었던 다른 사람은 어땠을까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글쓰기에 대한 상황을 떠올려보면 나를 중심에 두고 대상을 생각하거나 대상의 입장에서 나를 생각해보기도 하는데요. 그 외에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나와 같이 느꼈을까, 달랐던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등등 생각하고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와 부모님의 갈등에서 보고 있었던 동생들의 시선이요. 글을 쓰면 찬찬히 생각하게 되니까 동생들을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쓰고 동생에게 “어때?” 하고 보내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분노나 화가 조금 더 정리되기도 했고 완전히 다른 해석이 등장했을 때 ‘아, 사람의 기억이란 정말 편파적인 것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R>

정리되지 않아 기어이 올라오고야 마는 가족에 대한 감정을 살피면서 이름을 붙여보고 싶었습니다. 부모, 특히 아버지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 어릴 때부터 크게 있었고, 그 감정은 결국 나 자신을 공격할 때가 많았어요. 늘 그 감정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었는데, 그러려고 글을 쓴 건 아니지만 글쓰기가 도움이 되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가족에 대해 풀어쓰다 잠시 중단했는데요. 쓰다 보니 이 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워 일단 멈춘 것 같아요. 조금 거리를 두는 사이 여러 장르의 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글을 써보니 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어서 더 꼼꼼히 읽게 되었던 거
같아요. <P>

글을 쓰다 보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잃을 때가 있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고 어느 정도에서 걸러야 할지 적절한 정도와 거리가 잘 그려지지 않았다. 그럴 때는 타인의 경험을 읽었다. 내가 글을 쓸 당시에는 부모와의 갈등이나 관계를 중심으로 글을 쓴 사람들의 글보다는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고 싶은 마음에 개인적인 서사지만 사회적인 의미를 담은 책을 주로 읽었다. 아버지와 갈등을 글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 친구들에게도 전혀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독서에 많이 의지하기도 했다. 글을 쓰면서 감정이 휩싸이면 잠시 멈추고 독서를 하고 또다시 글을 쓰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갈등의 당사자인 기종과 하니 옆에 있었던 향임과 준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그들이 어땠을지 궁금했다. 나만의 외로운 아우성은 아니었던 거다.

기억과 감정을 체로 걸러보면

글쓰기는 가슴 속에만 담아두었던 응어리들을 쏟아내는 과정이었고, 뭉텅이로 영겨있어 형체를 알 수 없었던 감정을 체에 걸러보는 시도였다. 침묵으로 일관했던 아버지가 왜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는지 따라가 보면, ‘기종’이 지금 이 시

대를 살아가는 ‘아버지들’의 서사로 번져 나갈 때가 있었다. 물론 그랬다가 다시 나의 시야가 아버지로 줄어들 때도 있지만 한 사람이 체득한 정체성을 여러 갈래로 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내가 만들고 가꾸어온 나를 돌아볼 기회이기도 했다.

처음에는 주로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 서글웠던 감정을 풀어내는 데 집중했는데, 쓰다 보니 좋았던 순간들도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마치 제 몸이 버리고 싶은 것들이 잔뜩 뒤엉켜있는 서랍장이라고 한다면, 그걸 싹 비워내려고 탈탈 털어내다 꽤 마음에 들어 간직하고 싶은 것도 찾은 거죠. 그때 참 많이 울기도 했는데 좋기도 했어요. 이걸 내가 쓰기 시작해서 찾아낸 거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묘하게 아름답다고 느껴지기도 했어요. <P>

나를 위해서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정리되지 못한, 말하지 못한 것들이 쌓여 있으면 결국 그것이 삶에 지속해서 영향을 주니까요. 마음의 방 청소라고 할까요? <J>

나에 대한 글쓰기를 하다 보니, 스스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나 어찌면 회피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그대로 글에 나타나는 걸 알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선 더 자세히 글을 써야 풀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략) 글을 쓰며 자연스레 생각이 정리되고 드러났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맞아, 이거 진짜 인젠간 내 안에서 풀어야 할 것이라는 걸요. <R>

갈등을 마주하며 글쓰기를 시도했던 우리들은 감정을 체에 걸러보고 싶었고, 버리고 싶은 것들이 잔뜩 뒤엉켜있는 서랍장이 있었고, 마음의 방 청소가 필요했고, 풀어 헤쳐 정리할 것이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았던 실들이 한데 엉켜 여러 매듭이 꼬이고 꼬여버린 채 한 움큼씩 마음의 구석에 보관되어 있었다.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풀지 않아도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엉켜있는 실을 풀다 보면 그냥 싹둑 자르고 싶기도 하고 뭉텅이 채 버리고 새 실을 사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한다. 일부러 푸는 것보다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편할지도 모른다. 그만큼 단단하게 엉켜있는 무언가를 푸는 과정은 쉽지 않고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엉켜 있는 것들을 언젠간 풀어보고 싶어서요.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계기에서 그것들이 터지는 것보단 충분히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선 글쓰기의 방식이 좋은 것 같아요. <R>

그럼에도 마음 한쪽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응어리를 풀고 싶어 우리들은 글쓰기를 시도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풀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일지도 모르고 위험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뭉쳐있던 실이나 줄을 풀었을 때 희열을 느끼는 것처럼 글쓰기 역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뿌듯함을 동반한다. 완성하지 않아도, 글을 쓰기로 결심하고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결국엔 존중과 애정이 아닐까요

사실 글을 쓸 때는 잘 몰랐다. 나는 왜 누구나 겪는 부모와 갈등을 소재로 글까지 쓰려고 하는 걸까. 과도한 집착은 아닌가, 다른 사람은 자유롭게 보이는데 나만 이 관계에 묶여있는 것은 아닐까. 짧은 글 묶음이지만 <기종과 하늬>라는 완성된 책자를 발간하고, 부모와 갈등을 중심으로 타인의 경험을 쓴 글을 읽으면서 흐릿하지만 발견한 배움이 있다. 결국 글쓰기는 나를 긍정하는 과정이었고 글 쓰는 대상에 대한 부단한 존중이었다.

나에 대한 글쓰기는 생각보다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글을 쓰기 위해선 나와 그때의 상황을 마주해야 하는데, 그냥 생각하지 않고 피해 살면 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보내온 시간이 더 많아서 굳이 그걸 꺼내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R>

스스로 '가족에 대해 함부로 입을 놀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글을 쓰면서 그런 사람에 가까워질 수 있겠다 싶었어요. 말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하게 되고,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과장하거나 축소하기도 하잖아요. 글을 쓰면 고칠 수 있고 다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게 어떤 질문을 받고 답을 할 때 도움이 되었던 경우가 있었어요.<P>

제 삶의 불행과 고통이 나만의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싶고, 여기에 서사를 부여해서 의미를 구현하고 싶어요. 더불어 제 글이 보편성이 있다면 이것 자체가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영향력을 끼치고 싶기도 한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타인에게 공감받고 싶습니다. <J>

나를 긍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 자신을 옳고 좋은 사람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성하는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파악하고 그 자산과 배경을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길고 긴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친 크고 작은 것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도 필요하다. 나를 포함해 글을 썼던 우리들은 서로의 삶에서 깊이 영향을 준 갈등을 풀어내고자 노력했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고 쉽지 않기 때문에 ‘타인에게 공감받고 싶’기도 하다. 또한 갈등의 당사자들을 내 감정대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면서 기억과 감정을 반복해서 돌아보면 어느새 그들을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

<기종과 하늬>는 아버지에게 드리는 긴 글이면서도 내가 누구인지 그 위치를 확인하는 시도였다. 지금의 내가 형성되기까지 수많은 반응과 반동, 파동과 파고를 세세히 알아차리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리고 또 다른 정체성을 재구성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할 하나의 순간이 될 것이 분명했다. (중략) 이 지점에서 나는

감히 수전 팔루디도 <다크룸>을 집필하면서 비트랜스젠더 페미니스트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해체하고 새롭게 결합하기를 반복했다고 믿는다. 수전 팔루디는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둘러싸고 어떻게 이데올로기와 젠더의 수행이 한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가를 추적한다. 더불어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억을 소환해 마주한다. 마주하면서 발생하는 힘, 이는 타인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사유의 역능이자 견고하게 굳어져 있는 관계를 깨고 재구성할 수 있는 유연함이다. 그리고 불확실한 자아가 단단해지는 짜릿한 경험이다.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쩌면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들여다볼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게 아닐까. <연구자의 <다크룸> 서평 일부 발췌>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듯이 글을 쓰면서 타인의 경험을 읽었다. 내 앞에 놓인 갈등이 특수한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들 역시 저만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글쓰기로 풀어가려는 노력을 길고 세세한 과정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었다. 고통의 경중을 재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지속할 힘이 되었고, 외롭지 않다는 구조신표였으며 안전함을 동반한 위로였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 또한 부모님 삶의 이야기, 내가 모르는 전사(前使)를 파악하고 싶어요. 내 부모를 더 이해하면, 제 삶도 조금 더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J>

이야기는 사람을 만나 이동하고 변화하며

세계의 패턴이라는 표현은 어떤 일관성이나 모든 것을 잇는 연관성에 대한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오래된 표현을 빌리자면, 이야기는 직조된다. 이야기는 대상을 묶어 내는 실이었고 그 실로 세상이라는 천이 직조되었다. 강력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서로 이어져 있음을, 그렇게 이어져 패턴을 이루고 있음을 본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야기가 되어 그것을 말하고 또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 (리베카 솔닛, 〈멀고도 가까운〉(2016), 351쪽)

‘아버지와 나의 이야기, 사적인 이야기가 누군가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을까?’ 글을 쓰고 완성하고 나서도 의구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글을 쓰기 전에는 좀 더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싶었는데 쓰다 보니 어쩐지 매우 사적인 기억만 늘어놓게 된 것 같아서 마음 한편이 불편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건 처음부터 욕심이였을지도.

나의 걱정과 달리 〈기종과 하늬〉를 주변에 알리고, 글을 쓴 이유와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알렸을 때, 많은 분이 응원해 주셨다. ‘작가와 대화’에서 만난 지인들 역시 나와 상황이 다르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나의 글은 말 걸기를 하고 있었다. 이는 글쓰기를 시도한 지인들을 인터뷰하면서 더욱 확실해졌다.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기종과 하늬>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갈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다.

처음엔 하늬 이야기라서 관심이 생겨 읽게 되었는데, 읽으면서 ‘맞아, 맞아’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어요. 완전히 상황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감정이 든 나의 다른 상황에 감정을 이입하기도 했고요. (중략) 상황이 같지 않아도 대입되는 자신만의 장면이 있기 때문에. 또한 글을 쓰고 읽는 과정만으로도 갈등을 풀어나갈 방법이라고 생각해서요. <R>

하늬의 가족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애정을 듬뿍 느낄 수 있던 책이었어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 또한 글을 쓰며 그랬듯 부모와 어떤 순간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평생 잊히지 않는구나 싶었어요. 그 따스한 기억과 지금의 대조감이 글을 쓰게도 하는 걸까 싶기도 했어요. <P>

그리고 확장한다

직업이 활동가여서 그랬을까. <기종과 하늬>의 독자가 아버지라는 걸 잊지 않으려 했지만, 사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공감으로 이어지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다. 활동가는 사회변화를 위해 문제점을 찾아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특히 많은 사람이 잘 인지하지 못했던

지점이라면 어떻게 공감을 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크다. 소통과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느껴왔기 때문에 처음에 글을 쓸 때는 개인적인 서사와 사회적인 서사가 넘나드는 책을 주로 읽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독서를 통한 영감이 어떻게 글쓰기에 영향을 주었고 도움을 받았는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갈등’을 경험하고 다루는 책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글의 방향을 잡고 가다듬어야 할지 매번 고민이 들었다. 예를 들어, 스무 살이 넘어 아버지와 정치적 다름으로 갈등을 겪었을 때 사회적으로 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이를 어떻게 함께 이야기하고 풀어야 할지 쉽지 않았다. 사건의 전반을 다루자니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 같았고 분석을 하자니 그건 나보다 훨씬 더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의 책이 이미 나와 있었다. 또한 그 분석이 독자인 아버지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 고민도 빼놓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학생운동이나 사회운동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 계기도 담고 싶었으나, 그러기엔 더 많은 공부가 필요했다. 무엇보다 그 부분은 아버지와 대화를 통해서만이 가능했기에 〈기종과 하늬〉를 쓸 당시에는 어려운 일이었다.

독자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글을 읽어주길 바라는 독자가 명확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독자에 집중하는 글쓰기로 〈기종과 하늬〉를 마무리 지었다. 중요한 사건은 언급하되 아버지와 나의 상황에 더 초점을 맞췄고 원점으로 돌아가 ‘내가 왜 이

글쓰기를 시작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끊임없이 답하면서 글을 써 내려갔다. 그러다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회적 서사라는 것이 ‘사회적’ 사건이나 ‘역사적 맥락’을 다루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나와 같은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공감받고 싶습니다. 제 삶이 그냥 재수가 없거나 운이 없어서 고통을 겪거나 불행을 겪은 게 아니라, 지금 이 구조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음을. 다른 누군가도 이런 이야기를 겪었음을 확인하고 싶어요. <J>

가족(특히 부모님)과의 갈등이 누구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풀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기종과 하늬>는 갈등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여주는 그 과정만으로도 갈등을 푸는 풀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다는 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멈췄던 저의 글쓰기에 다시 써봐야겠다는 용기를 준 책이고요. <R>

나의 글쓰기가 공감으로 이어지길 바랐다는 것은 어찌면 나의 이야기가 타인의 공감을 찾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갈등이지만 제대로 이야기되지 않아 함께 나눌 이를 찾는 외침이었을지도.

<기종과 하늬>를 완고하고 나서부터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수전 팔루디의 〈다크룸〉을 시작으로 리베카 솔닛의 〈멀고도 가까운〉, 이길보라의 〈반짝이는 박수 소리〉 그리고 아니 에르노의 〈한 여자〉 등. 모든 책이 딸과 아버지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다. 타인과 관계에 대한 글도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책의 공통점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해 사회나 문화, 역사를 가로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관계나 정체성, 질병, 장애, 죽음 등을 작가들은 자신만의 경험과 사유로 풀어내어 이야기로 만들었다. 같은 상황에 처한 것도 아니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지만, 나는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따라 들어가 따스한 위로를 받았고 다시 이야기에서 나와 내 앞에 마주한 갈등을 바라볼 수 있었다.

이것은 전기도, 물론 소설도 아니다. 문학과 사회학, 그리고 역사 사이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라. 어머니의 열망대로 내가 자리를 옮겨 온 이곳, 말과 관념이 지배하는 이 세계에서 스스로의 외로움과 부자연스러움을 덜 느끼자면, 지배당하는 계층에서 태어났고 그 계층에서 탈출하기를 원했던 나의 어머니가 역사가 되어야 했다. (아니 에르노, 〈한 여자〉(2012), 110쪽)

프랑스 작가 아니 에르노의 〈한 여자〉는 어머니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글쓰기를 ‘가족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접점에, 신화와 역사의 접점에 위치’할 것

이라고 말하며 개인적인 서사가 어떻게 사회적 의미를 충분히 내포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그의 어머니는 노동자 계층 출신으로 식료품 가게 주인에 대한 열망을 갖고 성공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을 그대로 드러낸다. 또한 노동자 계층의 어머니와 지식인 계층이 되어버린 딸 사이에 존재하는 기운과 긴장을 굉장히 솔직하고 담대하게 글로 담는다.

개인의 서사가 다른 개인을 만나 또 다른 서사를 발화하게 되면 그것으로 충분히 사회적 의미가 있다. 더불어 개인의 서사가 역사적인 맥락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삶 또는 일상 그 자체가 문화, 역사, 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나의 이야기, 사적인 이야기가 누군가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을까. <기종과 하늬>를 펴내면서도 선볼리 대답할 수 없었던 질문은 타인들과 대화와 타인들의 경험을 쓴 글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해소되었다. 특수하지만 그 자체로 이미 보편성을 획득한 관계와 그 관계가 만들어내는 갈등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을 만나 이동하고 각자의 방식대로 변화하며 더 많은 사람과 조우하며 확장한다.

함께 한다면 더 힘이 될 거예요

글을 쓰기로 자신에게 선언하고 결심했을 때, 이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았다. 아무래도 혼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나갈 자신이 없었다. 아무에게도 글을 쓴다고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만두면 그만이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고 때로는 마감을 재촉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다. 글쓰기를 시작할 때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내 글이 <기종과 하늬>라는 하나의 완성된 책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파트너 덕분이다. 글을 쓰는 것은 오롯이 나의 몫이지만 지난하고 때로는 의미를 잃어버리기 쉬운 과정을 완주할 수 있게 된 것은 옆에서 누군가 촉진했기 때문이다. 그는 의미를 찾지 못하는 글에 의미를 붙여넣었고, 감정의 풍랑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을 때면 꺼내주기도 했으며, 내게만 몰입해 있을 때는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주변 사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조언을 해주었다.

제가 생각하는 의견에 대해 의미가 부여되니, 제 생각에 조금 더 당당해지는, (오히려) 타인의 평가와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J>

아버지와 저 사이에 (나름) 길게 적힌 글이 존재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걸 아버지를 모르는 누군가가 읽었다는 사실이 생기고

나서 아버지와 저 사이에 어떤 존재가 생긴 것 같아요. (중략)
그렇게 제 감정들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글을 읽으신 분들이 공
감해주고 계속 이어가 달라고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셔서 써갈
수 있기도 했어요. 글 쓰는 행위 자체의 해소감도 있지만 읽어주
시는 분들이 있어서 써갈 수 있었어요. <P>

인터뷰를 했던 지인들은 모두 글쓰기 워크숍이나 지인들
과 모임에서 우연한 기회로 자신에 대한 글을 썼다. 그들 역시
함께했던 지인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으며 글쓰기를 나아갈 수
있었다. 이들 중에서 글쓰기를 중단한 이유는 워크숍이 끝났
거나 모임이 잠시 중단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바쁜 일상 속
에서 시간을 마련해 글쓰기를 지속하는 데 있어 혼자만의 의
지로 동력을 내기는 그리 쉽지 않다.

아마도 글을 쓸 여유가 없었고, 함께 쓸 사람들이 없으니 환경적
으로 동기부여를 스스로 많이 하지 못한 것 같아요. <J>

가장 현실적으론 그만큼의 시간을 들이기 힘들어서요. 어떠한
목표나 마감 없이 글 쓰는 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
니다. <R>

글을 쓰는 과정에서 꼭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와 글을 나누고 의견을 듣는 것이 불편하거나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글 쓰기는 갈등을 마주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그 갈등은 아주 오래전 일어난 일이거나 나처럼 오랜 시간 동안 견뎌야 했던 것이었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 여정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흩어진 의미를 붙잡을 수 있고 글 쓰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으며 필요한 눈치를 보면서 마감에 맞춰 글을 쓸 힘이 된다. 더욱이 서로를 토닥일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여정은 덜 외롭다.

에필로그

이야기가 다시 시작하는 이곳에서

여름의 한가운데서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다. 청소년 때 부터 인권 활동 등을 시작한 G는 서울에서 몇 년간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 부산으로 거처를 옮겨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는 바다가 잘 보이는 카페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인터뷰이긴 했지만 경험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아 나는 질문자의 역할에 머무르지 못하고 불쑥불쑥 나의 이야기를 덧붙여 대곤 했다. 그의 이야기는 그의 것이기도 했고 나의 것이기도 했으며 또 다른 누군가의 것이기도 했다.

이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가족 구성원과 정치적 다름으로 갈등을 경험하는 지인 두 명을 인터뷰했다. 우리는 모두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이고 정치적 다름과 더불어 활동가라는 우리의 직업이 부모님의 이해나 인정을 받기 어려웠던 부분도 비슷했다. 나처럼 부모님과 대화를 오랫동안 중단한 사람도 있었고 결국 갈등이 심해져 함께 살다가 따로 집을 구해 나간 경우도 있었다.

함께 살면서 부대끼면 좀 이해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어요. 이해해주지 않을까. 또한 착한 딸, 훌륭한 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족 모임도 다 나가고 대신 (친척들이나 가족들 말에) 대꾸하지는 않고. (중략) 엄마 아빠 신경을 건드릴 일은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숨죽이면서 버텼어요. 주말도 없이 일하는 걸 숨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티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싸우고 나서 엄마를 바라보기 어려웠죠. <H>

그러나 순간순간 열심히 관계를 풀어보고자 노력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한 부딪힘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기도 했지만. 흥미로운 것은 인터뷰했던 모두가 정치적 다름으로 인한 갈등은 여전했지만, 다른 방향으로 관계의 전환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2013년부터 추석에 가족여행을 가면 어떻게 제안했어요. 그때부터 가족여행 다니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짧게 가더라도 여행을 다니다 보니 말을 정확히 하진 않지만 이해하는 차원이 생겼어요. <G>

이사하고 나와서 (부모님) 집에 가면 영화도 보고 음식도 사가거나 비워 맞춰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중략) 부모님 집을 나오고 나서 일상에서도 긴장감이 떨어진 것 같아요. 눈치 보는 기술도 늘었고. 친척들이랑 다 모이는 자리에서 초반에는 안부만 묻고 할 얘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H>

나 역시 명절에는 ‘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한다. 불편한 구석이 있어도 입을 다물고 웃음을 유지하는 기술도 늘었다. 최소한의 역할이었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애썼다. 갈등의 당사자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주변 친척들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챙기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

고, 훨씬 안전한 방법이기도 하다.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나를 이해해주는 구성원이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 만나서 대화가 가능한 점점이 넓어진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을 때 가장 갈등이 고조되었던 것 같아요. 중재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나도 회피하게 되고. 최근에 논쟁이 벌어지면 중재하는 사람은 어머니예요. 편을 들어주시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정치적 이슈에 있어서는 동생이 편을 들어주시기도 하고요. 대선이나 선거 등에 대해 동생이 물어보기도 하고 동생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 주기도 하고. 최근 몇 년 동안 반복되는 패턴인 것 같아요. <G>

친척들과 다 같이 가족모임을 하면 젊은 사촌들이 수고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어요. 저의 (시민단체) 활동이 사회와 연결되는 것을 확인한 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H>

갈등이라는 것을 꼭 직면하거나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것 또한 상당한 양의 기운과 힘이 필요하고 그럴 마음이 자발적으로 들어야 가능하다. 그래야 지치고 잠시 회피하더라도 언젠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씨앗을 품을 수 있다. 내가 인터뷰를 했던 다섯 명 모두는 삼십 대나 사십 대로, 저마다 십 년 넘게 혹은 더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기 때문에 부

모님과 갈등이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때로는 분노하고 그러다 지치기도 하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 지금도 겪고 있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를 마주한다는 것은, 나의 삶을 다시 돌아 하나씩 바라봐야 하는 과정과 같다.

(〈기종과 하늬〉를 썼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실천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나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긴 했어요. 하지만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동생과 어머니를 붙잡고 얘기를 나누면 무슨 얘기를 나눠야 할지 모르겠고, 괜히 그런 얘기를 했다가 싸우진 않을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G〉

나는 그의 말을 충분히 공감했다. 나 역시 아버지와 또 부딪히게 되고 대화가 중단된다면 어떻게 그 과정을 다시 마주할 수 있을지 생각만으로도 아득해진다. 어쩌면 만나는 때 순간이 도전일 수도 있기에 두렵기도 하다.

가족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인터뷰를 진행한 H와 대화에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었다. H는 시민단체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던 아버지와 갈등이 심했는데 그가 부모님 집에 나와 따로 살기 시작하고 언제부터인가 아버지는 그의 단체에서 발간하는 소식지를 보셨단다(소식지를 받는 주소는 여전히 부모님 집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즈음부터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이 점차 변하셨고 소식지를 통해 H의

활동과 단체 소식을 살펴보며 질문도 하셨는데, 한번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H의 아버지는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신 참전 군인이시다.

민간인 학살은 전쟁 초반에 일어난 일이다, 아버지가 가셨을 때는 학살이 있었던 때가 아니라 전쟁 막바지여서 모르셨을 수도 있고, 학살이 일어난 곳이 배치 받았던 곳과 다르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또, 군사재판 받아서 유죄판정 받은 케이스도 보여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 초기에는 그럴 수도 있었겠다. 왜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지 알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중략) 적대적으로 대화가 안 되어서 기쁘기도 했는데요. <H>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말은 여기서 무척 중요하다. 서로가 알고 있는 생각과 사실들을 펼쳐놓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완전한 동의는 어려울 수 있어도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은, 대화를 지속할 힘이며 서로에 대한 존중일 수 있다. 나의 것을 그 여지만큼 포기하는 용감한 움직임이기도 하다. 모든 주제에서 이런 틈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어쩌다 발견한 것이라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날의 대화는 아마도 갈등을 마주하며 겪어낸 시간과 노력, 회피, 분노, 슬픔, 기쁨 등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갈등을 슬기롭게 마주하기 위해 글쓰기를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나 역시 <기종과 하늬>를 발간했지만 나

와 아버지 사이에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부분과 쉽게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한다. 하지만 내가 만난 사람들과 나처럼 몸과 마음이 기억하는 응어리들을 풀어내는 방식이 글쓰기라면, 언젠가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또한 온몸으로 겪어낸 갈등이라면, 쉽진 않지만,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 했던 작은 몸짓의 의미를 발견하기를 바란다. 나는 나대로, 갈등의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자신만의 방식과 속도가 존재하니까. 가끔은 일부러라도 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나기는 잠시 피해가라”는 어머니의 말처럼 갈등의 끝이 너무 깊으면 조금 더 몸을 움츠리고 회피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아주 나중에라도 내가 피하거나 혹은 직면하기를 외면했던 관계의 엉클어진 매듭을 풀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조금씩 나아가길 바란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갈등으로 나를 구성하는 그 무언가가 덜컥거린다면 한 번쯤은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나는 매듭을 풀어보면서 덜컥거리는 간격을 좁히면서 조금 더 나를 이해하고 긍정하며 동시에 내 주변을 더 살피게 되었다. 온몸으로 살아내고 있는 갈등을 마주하고 관찰하고자 하는 마음과 용기가 생긴다면, 그래서 택한 방법이 글쓰기가 된다면, 나의 경험과 우리들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무척 다행일 것 같다.

고마움의 글

우리가 책이라고 부르는 물건은 진짜 책이 아니라, 그 책이 지닌 가능성, 음악의 악보나 씨앗 같은 것이다. 책은 읽힐 때에만 온전히 존재하며, 책이 진짜 있어야 할 곳은 독자들의 머릿속, 관현악이 울리고 씨앗이 발아하는 그곳이다. 책은 다른 이의 몸 안에서만 박동하는 심장이다. (리베카 솔닛, 〈멀고도 가까운〉(2016), 99쪽)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독서를 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어왔던 책은 리베카 솔닛의 〈멀고도 가까운〉이다. 이 보고서에 책의 몇 구절을 인용했다. 저자는 어머니가 겪는 질병을 함께 경험하며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기억을 선별, 나열하고 그 순간이 자신을 어떻게 구성하고 구성해가고 있는지 여러 이야기를 엮어 보여준다. 보고서를 쓰면서 내가 인터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연결하고 글로 옮길지를 고민하면서 많이 참고하려 노력했다. 이것은 나의 이야기이면서 타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드러내고 어디서 잘라야 할지 머뭇거리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녹취록을 반복해서 읽었다. 인터뷰를 응해준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을 비롯해 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겠냐며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하지만 성심성의껏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어 나누어준 지인들에 대한 고마움을 글에 담고 싶었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와닿기를 진심으로

로 바라는 마음으로 써 내려갔다. 가족을 제외한 지인들 모두 알파벳을 사용해 익명성을 유지했는데, 몇몇 지인들의 요청이었고 모두에게 적용했다. 독서를 통해 배운 것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이었고, 이들을 존중하려 노력한 마음이 글에 배어나기를 바란다.

‘활력향연’ 사업이 없었더라면 이 과정은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혹은 아주 힘겹게 진행되었을지도. 그렇기에 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을 준비하고 만들어준 NPO 지원센터의 김지민, 나혜수 매니저님께 감사한 마음 꼭꼭 담아 전한다. 두 분의 다정한 지원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에 들어가 생각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갈등을 마주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글쓰기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다. 더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영글어진 생각을 정리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가 완성될 수 있도록 힘써준 모든 분과 고민을 들어주고 지혜를 나누어준 지인들, 글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봐 주는 자문의 역할을 흔쾌히 맡아 주었던 K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다크룸〉서평

나를 구성하는 조각들의 해체와 결합, 그리고 재구성

〈다크룸〉을 읽어야겠다고 다짐했던 이유는 단 하나,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딸이 어떻게 아버지를 인터뷰하고 끝까지 글을 썼을가에 대한 호기심이었다. ‘수전 팔루디’가 잘 알려진 페미니스트이자 집요함과 치밀함으로 찬사를 받았던 〈백래시〉의 저자이며 인터뷰의 대상이었던 아버지가 ‘트랜스젠더’라는 부분이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을 테지만, 내가 이 책을 선택한 주요한 이유는 아니었다. 〈다크룸〉이 번역되어 출판되었을 즈음, 나는 정치적 갈등으로 아버지와 1년 반 정도 대화를 중단한 상태였고, 그 상태를 바꾸보기 위해 아버지에게 드리는 글을 묶어 책자로 출간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다크룸〉과 비교해 두께도 형편없이 얇고, 끈질긴 인터뷰(사실 아버지와 대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터뷰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도 없었으며, 그저 아버지에게 드리는 긴 글이라고 생각해 정식 출판을 생각하지도 않았던 책자였다. 〈기종과 하늬〉가 그렇게 세상에 나올 소박한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에

〈다크룸〉을 접했다. 둘의 다름은 명백했지만 ‘딸과 아버지’라는 공통점이 강렬하게 나를 잡아당겼다. 왜 수전 팔루디는 30년 가까이 관계가 멈춘 아버지와와의 인터뷰를 다시 시작했을까, 긴 시간 동안 이어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단지 아버지가 자신의 이야기를 쓰라는 제안 때문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버지는 딸과 수차례 인터뷰를 하는 동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리고 나는 이들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싶었을까.

〈다크룸〉에서 수전 팔루디는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취재하고, 분석하고, 사유하고, 대화한다. 수전 팔루디는 아버지의 긴 여정을 20세기의 젤리그(어떤 상황에서도 자유자재로 변신할 수 있는 사람)의 여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헝가리 유대인’ 이슈트반 프리드먼에서 ‘동화된 헝가리인’ 이슈트반 팔루디로 변신했고, 다시 20대에 ‘미국 남자’ 스티븐 팔루디가 되었다가 76세에 스테파니 팔루디가 되었다(〈다크룸〉, 626쪽). 저자는 자칫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는 아버지의 유동하는 정체성의 근간을 찾기 위해, 헝가리의 유대인으로 태어난 이전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개인적 및 사회적 시공간을 넘나들며 보여준다. 그래서인지 어떤 순간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유대인의 삶, 더욱이 헝가리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역사를 읽고 있는지 헷갈릴 정도였다.

내가 누구더라는 감각은, 내가 그 좌표를 파악할 수 있는 한, 반골 기질과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 같았다. 만약 그 정체성이 위협당한다면, 나는 그것을 주장했다. 나의 ‘정체성’은 그것이 가장 위협당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더 활발해졌다. (수전 팔루디, <다크룸>(2020), 94쪽)

<다크룸>은 분명 스테파니 팔루디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저자 수전 팔루디는 자신의 페미니스트 정체성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말한다. 페미니스트 정체성이 “아버지가 겪은 ‘정체성 위기’의 잔해”로부터, 미국 남성성의 페르소나를 증명하지 못한 지점에서부터였다고 밝힌다. 취미이자 피난처였던 페미니즘이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고 덧붙이고 있다. 또, 사진 기자로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수정하고 숨기는 직업을 갖는 아버지와 무엇이든 밝히려 하는 기자 사이의 “격화된 싸움”으로 아버지와 관계를 설명한다. 지금의 수전 팔루디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선택이면서 동시에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자산과 배경을 알아차리고 이에 쉽 없이 반응하는 것이었다. “내가 도망칠 수 없었던 것은 아버지”였음을 고백하면서도 “격화된 싸움”에 직접 뛰어든 수전 팔루디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헝가리와 미국, 아버지와 주변 친구, 친척, 페미니즘과 트랜스젠더리즘을 경험하고 연구하는 이들을 취재하면서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답을 확장시켰다. 때로는

분명 지난하기만 했을 일련의 과정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영역을 교차했다.

이와 같은 저자의 자질, 실천과 행동은 내가 <기종과 하늬>를 쓰기 시작했을 때와 쓰는 동안의 순간들, 쓰고 나서의 나를 돌아보게 했다. 단순히 비교하기엔 상황과 맥락이 분명 다르지만 나는 저자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수전 팔루디가 왜 싸움을 멈추지 않았는지에 시선을 두었다. <기종과 하늬>를 출간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왜 이 글을 쓰기 시작했냐는 거였다. ‘그러게요, 왜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이 글의 의미를 의심했던 적이 많았음에도 말이죠.’ 스무 살 이후 줄곧 정치적 다름으로 아버지와 갈등을 겪으면서 자연스레 나를 구성하는 것들을 모래성처럼 쌓아 듬성듬성 숨겨 두었다. 그러던 것이 활동으로 드러나면서 갈등이 극대화되었다. 아버지는 딸이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딸의 세세한 활동을 모두 알지 못하셨다. 그러다 최근 인터넷을 활발히 사용하시면서 딸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셨다. 기종이 바라는 평화와 하늬가 희망하는 평화는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기에 대화는 중단되었고 우리는 침묵을 차가운 얼굴로 대면해야 했다.

아버지는 대학을 들어가는 나에게 ‘이념서클’과 ‘학생회’에

들어가지 않기를 조언했다. 예전 학생운동을 했던 막내 삼촌이 떠올라서였다. 아버지가 군 복무 중이었을 때 삼촌은 대학에 들어가 학생운동에 참여했다. 사복경찰들이 집에 들이닥쳤다는 소식을 들었고, 데모를 하다 허리를 다쳐 누워있는 삼촌을 보았다. 아버지는 막내 삼촌을 충분히 돌보지 못했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속상해하셨다고 했다. 1980년대의 학생운동과 2000년대의 학생운동이 다르고 사회의 분위기도 달라졌지만, 아버지에게는 가족이 학생운동을 하는 것이 우려스러운 일이었다. 더욱이 막내 삼촌은 그 이후 아버지와 같은 보수적 성향을 질게 띄게 되었는데 이런 변화들이 아버지에게 안타까움으로 남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삶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나는 역부족이었고, 스무 살의 나는 그저 사람들이 좋아서 ‘이념서클’과 ‘학생회’를 모두 가입했다.

짧게나마 경험했던 운동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숨겨진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시선과 사고를 쌓아 가는데 큰 힘이 되었다. 확립되었다고 믿었던 정체성이 세계 흔들리면서 무수한 변화들을 마주하고 있는 동안 아버지는 딸의 변화를 내가 고향집을 방문할 때만 가끔씩 감지할 수 있었을 거다. 그리고 그 변화들은 아버지의 삶을 뒤흔들 만큼 큰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아직 뭘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나중에 크면 느그 막내 삼촌처럼 그렇게 변할 거다.” 아버지는 내가 어려서 좌파가 되는 거라며 ‘어른’이 되면 후회하게 될 거라고

하셨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소리를 내어 때로는 마음속으로 다지고 새겼다. ‘삶으로 증명할 거라고. 나는 다르다는 것을.’

더 이상 누군가에게 증명하기 위해 살지 않는다. 하지만 변화했으면서 변화하지 않은 나를 조금 더 친절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기종과 하늬’ 사이에는 모르는 서로만이 남아 끝내 알지 못하는 불필요한 후회만 남을 것 같았다. 분명 스무 살 이전과 이후의 나는 달라진 점도 있겠지만, 난 여전히 기종의 딸 하늬이고 기종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는 시간을 소중히 생각한다. 그래서 <기종과 하늬>를 쓰기 시작했다. 우리가 함께했지만 서로 다를지도 모르는 기억의 조각들부터 시작해 살아가는 시공간이 달라 알지 못하는 일부의 조각들을 꺼내놓았다. 처음에 글을 쓸 때는 아버지가 나를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나를 이해해 달라’라는 욕심을 꺼둔 채 글을 쓰면 쓸수록 글은 나아가질 않았고, 나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글을 쓰지 못했던 날들도 많았다. 내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면서 나는 이해받고 싶었던 거였다. 내 활동을 부끄럽다고 여겼던 아버지에게. 딸로서는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지만 ‘활동하는 딸’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기종에게.

솔직한 나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나는 감정을 덜어내고 순간을 낫설게 바라보기 위해 타인의 글을 읽고, 타인

의 조언을 새겼다. 아버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들었다. <기종과 하늬>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나만의 공간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은, ‘기종’이란 사람이 내 아버지만이 아니라는 사실과도 겹친다. ‘기종’은 내 아버지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60대 경상도 남성이자, 국가의 존립과 자아의 존재를 동일시하는 애국심 넘치는 사람 중의 한 명이며, 진심을 다해 태극기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 나의 아버지기도 하다.

무너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글을 완성했다. 부족하지만 뿌듯한 글이었다. <기종과 하늬>는 아버지에게 드리는 긴 글이면서도 내가 누구인지 그 위치를 확인하는 시도였다. 지금의 내가 형성되기까지 수많은 반응과 반동, 파동과 파고를 세세히 알아차리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리고 또 다른 정체성을 재구성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할 하나의 순간이 될 것이 분명했다. 이 지점에서 나는 감히 수전 팔루디도 <다크룸>을 집필하면서 비트랜스젠더 페미니스트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해체하고 새롭게 결합하기를 반복했다고 믿는다. 수전 팔루디는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둘러싸고 어떻게 이데올로기와 젠더의 수행이 한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가를 추적한다. 더불어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억을 소환해 마주한다. 마주하면서 발생하는 힘, 이는 타인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사유의 역능이자 견고하게 굳어져 있는 관계를 깨고 재구성할 수 있는 유연함이다.

그리고 불확실한 자아가 단단해지는 짜릿한 경험이다.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쩌면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들여다볼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였을까? 나는 수전 팔루디와 스테파니 팔루디가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을 묘사한 부분에서 맴돌았다. 기종과 하녀의 오롯한 마주함을 기다리며.

몇 분 정도, 아버지와 나는 서로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그 손을 잡았다. (중략) 아버지를 다시 보았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그렇게 자주 그녀의 얼굴에 떠오르던, 속을 알 수 없는 미소가 아니었다. 나는 팔을 들어 올렸고, 그녀는 프로처럼 그 밑으로 빙글 하고 돌았다. (수전 팔루디, <다크룸>(2020), 538쪽)

* 이 서평은 '젠더어펙트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젠더·어펙트 스쿨 제2회 리뷰 공모전 당선작입니다.

* 추천하는 책

* 보고서를 쓰면서 읽고, 도움 받은 책

김영옥, 메이, 이지은, 전희경,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 봄날의책, 2020

리베카 솔닛, <멀고도 가까운>, 김현우 옮김, 반비, 2016

수전 팔루디, <다크룸>, 손희정 옮김, 아르떼, 2020

이길보라, <반짝이는 박수소리>, 한겨레출판, 2015

아니 에르노, <한 여자>, 정혜용 옮김, 열린책들, 2012

최현숙, <할매의 탄생>, 글항아리, 2019

* <기종과 하늬>를 쓰면서 읽고, 도움 받은 책

아서 프랭크, <아픈 몸을 살다>, 메이 옮김, 봄날의책, 2017

은유, <글쓰기의 최전선>, 메멘토, 2015

최현숙, <할매의 탄생>, 이매진, 2016

현민, <감옥의 몽상>, 돌베개, 2018

